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4.20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483.50원 (+8.90원)

KOSPI

6,191.92 (-34.13, -0.55%)

KOSDAQ

1,170.04 (+7.07, +0.61%)

국고채 10년 금리

3.717 (+0.042%p)

Global Asset Strategy

화수분전략	코스피 신고가 국면, 이번에도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이재만]
김경환의 China Weekly	중국, 세 가지 명징한 매크로 신호 [김경환]
하나로 보는 글로벌 통화정책	[4월] '중동'이란 안개 속에서 진행될 통화정책 [허성우]

기업분석

팬오션	1Q26 Pre: 혼란한 해운 시황, 그러나 잘 버텨낼 것 [안도현]

산업분석 & Weekly

은행	자본규제 추가 완화로 2분기 CET 1 상당폭 상승 전망 [최정욱]
철강금속	WSA, 올해 전세계 철강 수요 소폭 증가 전망 [박성봉]
에너지/화학	이번 주가 중요한 분수령 [윤재성]
음식료/담배	오리온 간담회 시사점 [심은주]
2차전지	Arsenal of Democracy [김현수]
디지털자산	하반기 상승을 앞두고 잠재력 확인 [이준호]

글로벌리서치

Tech&Stock Weekly	아마존, 위성 통신 기업 Globalstar 인수 시사점&위성 관련주 주가 영향 [김재임, 김시현]
넷플릭스	워너 인수 철회에도 가이던스 상향은 없었다 [이기훈]
Hana China Weekly	알리바바, 과금체계 개편 통한 가격 인상 본격화 [백승혜]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한국금융지주, HD건설기계, 삼아알미늄, 리가켐바이오, 덕산테코피아, LIG아큐버, 와이엠티

이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하나증권

2026년 4월 20일 | Global Asset Research

화수분전략

코스피 신고가 국면, 이번에도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trategist 이재만 duke7594@hanafn.com

최근 4주 동안 미국 증시의 투자심리가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Put/Call 비율은 연중 최저치인 0.52배까지 하락했고,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 유가 하락(WTI 가격 83달러까지 하락)을 기반으로 향후 미국 2년물 국채금리(현재 3.7%)의 추가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PER 상승을 통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S&P500지수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2월 초 이후 현재까지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PER은 20.7배로 연중 고점 대비 9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S&P500지수 내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현재 PER은 연초 대비 크게 낮아진 반도체(연초 고점 대비 현재 PER 76%), 소프트웨어(73%), 투자은행(87%)은 지수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익이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2026년 2~4월까지 3개월 연속 12개월 예상 EPS가 상승하고 있고, PER은 연중 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소재(연초 고점 대비 현재 PER 90%)와 헬스케어 장비/서비스(87%)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한 업종이다.

공급 충격 우려 완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 유가 하락은 국내 기업의 이익 사상 최고치 경신 및 수익성 상승 지속에 대한 신뢰를 재차 강화시킬 것이고, 외국인 자금 재유입에도 긍정적이다. 코스피 신고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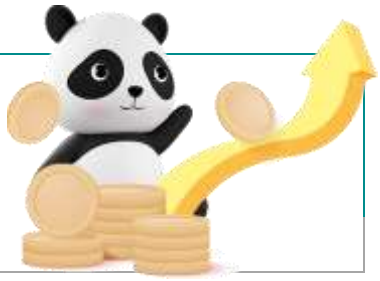
우선 코스피 신고가 돌파를 주도하는 업종들은 다음 고점까지 주도 업종 역할을 한다. 과거 코스피 5번의 사상 최고치 돌파 당시, 해당 월(月)에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코스피의 다음 신고가 형성까지 주도 업종 역할을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세장을 만든 주도주들은 강세장이 끝나기 전까지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

2026년 4월 현재까지 주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본다면 신고가 돌파 이후 다음 고점 형성까지 주도 업종 역할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종은 하드웨어, 반도체, 건설, 방산, 기계다(해당 업종들이 4월 코스피 대비 높은 주가 수익률 기록).

한편 지금 시대에 코스피는 반도체가 있어서 지수 상승에 유리한 구조이기도 하지만, 비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2025년 이후 반도체의 주가가 주간 기준으로 5~6% 상승하면, 코스피 내 대부분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지만, 절대 주가 수익률은 반도체 대비 모두 낮다.

다만 반도체의 주간 주가 수익률이 0~4% 내외일 경우 2차전지, 에너지, 화학 등과 같은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반도체보다 높다. 특히 해당 업종은 WTI 배럴당 가격이 90달러에서 80달러로 하락 시 영업이익률 개선 폭도 크고, 주가 수익률도 높다.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글로벌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장치(ESS) 산업과도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적당한 주가 수익률(0~4%)을 유지한다면,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김경환의 China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4.20

중국/신흥국 투자전략 김경환 khstyle11@hanafn.com

중국 분석 김성은 seongeunk@hanafn.com

중국, 세 가지 명징한 매크로 신호

- **중국 경제 1/4분기 세 가지 구조적인 신호, 2026년 리플레이션-이익-내수의 선순환 징조 :** 우리는 1/4분기 중국 매크로 환경에서 세가지 명확한 신호에 주목한다. 이는 ①중국 PPI 상승률의 플러스 전환과 재고-이익 사이클 확장, ②주택시장 장기 침체 이후 자발적인 회복 신호, ③명목 GDP 성장률의 강한 반등과 신용 사이클 극복이다. 2026년 중국 가격 신호(물가/이익/주가)는 2023-2025년 '광범위한 하락'에서 2026년 '구조적인 안정과 상승 확산'으로 전환될 것이다. 중국 투자는 유가 상승의 단기 영향보다는 역대 최장 디플레이션 탈출과 2027년까지 '리플레이션-이익-내수 회복'의 선순환 및 실적 강세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 **첫째, 중국 PPI 상승률 41개월만에 플러스 전환, 중국 재고-이익 사이클 확장 가속화 :** 중국 3월 PPI 상승률이 예상보다 1-2개월 빠르게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중국 제조업의 이익-재고 사이클 반등은 본격 가속화 구간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요인이 아니라도 2026년 중국 PPI 사이클은 '수출 호조-반내권(공급축소/구조조정)-탄소저감' 효과를 통해 약 5년만에 가장 강한 모멘텀이 예견된바 있다. 향후 6개월간 유가 레벨에 따라 글로벌 수요 영향과 전방 산업 마진 스퀴즈 부담이 상존하나, 역대 중국 PPI 상승률의 상승 전환기(2009년/2016년/2021년) 구간에 중국 증시 전반적인 이익과 주가 견인 효과가 우위였으며, 플러스 전환 이후 평균 6개월간 시클리컬/가치/성장(후반부)이 상대 우위를 보였다. 금번 PPI 상승 사이클의 모멘텀(MoM) 정점은 5-6월, 레벨의 정점(YoY)은 6-7월에 형성되고, 2027년 상반기까지 수급 요인에 따라 2023년-2025년 레벨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 **둘째, 1/4분기 주택시장은 2022년 이후 추세와 차별화된 자발적인 회복세 :** 중국 부동산 시장이 2021년 이후 '궤멸식' 하락세를 보인바 있으나 2026년 1/4분기 주택시장은 2023년 이후 계절적인 단기 회복세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분기 1선 4개 도시와 핵심 2선 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주택 거래(전체 60-70%)가 동기 추세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3월 70대 도시 신규-기존 주택가격의 전월비 상승률이 2025년 5월 이후 가장 강한 반등을 보였다. 물론, 전년비 상승률은 여전히 낙폭을 줄이는 수준이나 1선 도시 전월비 가격은 1년만에 다시 상승세(MoM+0.2%)로 전환되었다. 금번 회복세가 차별화되는 이유는 ①특별한 정책없이 실수요 중심의 자발적인 회복세라는 점, ②최근 3년간 대도시 매물 소진 이후 기존주택 거래와 가격 회복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③1선 도시의 임대료 상승과 진입장벽 완화 효과(구매제한 완화)를 수반한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는 2026년 주택시장의 광범위한 회복(3-4선/건설경기)을 예상하지 않으나, 온건한 회복세가 하반기까지 지속되면서 대도시 중산층의 소비심리 촉진, 생존 디벨로퍼의 장기 전망 안정, 부동산 및 내수 업종의 극단적인 침체 탈출이 5년만에 시작될 것으로 판단한다.
- **셋째, 1/4분기 명목 GDP 성장률의 강한 반등, 신용 사이클 공백 속 5% 성장률 :** 16일 발표된 1/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YoY+5.0%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4.8%)과 4/4분기(4.5%)를 상회했다. 물론, 이는 수출/제조업(테크/설비)/생산 호조세가 견인한 것으로 소매판매와 고정투자 등 내수 경기는 저점 회복에 그치며 2025년 이후 불균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다만, 우리는 ①1/4분기 명목GDP 성장률(YoY+4.84%)이 큰 폭으로 반등하며 GDP 디플레이터가 11개 분기만에 플러스 전환이 임박했다는 점, ②최근 6개월간 신용 사이클 둔화(사회융자총액/M2/대출) 속에서 5%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 효과와 탈부동산 충격 극복으로 신용과 성장률 상관관계 하락 강조)을 더 주목한다. 통상 중국 명목GDP 성장률 회복은 2026년 재정 수입과 상장기업 실적 회복으로 귀결되며, 무엇보다 장기 저물가에 눌렸던 기업 활동과 가계 심리 변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펜데믹 이후 중국 경제-금융(주가/장기금리)-환율 시장에 대한 영향이 광범위 하다. 우리는 2026년 중국 GDP 디플레이터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리플레이션 국면에 5년만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하며, 2027년까지 중국 주가와 환율은 강세, 장기금리는 '통제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2024년 이후 중국 증시가 최초로 부동산-대출 사이클과 '디커플링'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불균형한 구조의 성장세라 해도 4.5%-5%대에서 안정될 경우 주가가 새로운 성장 모델(테크/제조업/AI/서비스)과 산업 고도화(혹은 공급과잉 완화) 기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2026년 4월 20일 | Global Fixed Income

하나로 보는 글로벌 통화정책

[4월] '중동'이란 안개 속에서 진행될 통화정책

- 미국 FOMC: 동결. 빅 이벤트 가능성 낮음. 금리 방향성 뚜렷하지 않고 변동성 큰 장세
- 일본 BOJ: 동결 후 6월 인상 전망. 금리 상방 압력 당분간 이어질 전망
- 브라질 BCB: 25bp 인하 전망. 단기물(2년) 중심 보유 전략 권고

*'하나로 보는 **글로벌 통화정책**'은 큰 틀에서의 채권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를 다루며, 국가별 통화정책회의 리뷰와 프리뷰를 간단하게 작성한 자료입니다. 월간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채권시장은 신흥국이 주도하고 있다. 중동 전쟁 직후 유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주식, 채권, 금) 모두 일시적 조정을 받았다. 특히 채권시장의 경우 신흥국을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큰 폭 급등하며 미국과 신흥국 간 만기 수익률 격차가 170bp까지 확대됐다.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계심이 확산된 영향이다. 이후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발표 이후 전쟁 종식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식을 중심으로 V자 반등세를 기록 중이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내 통화정책 Shift 경계감 또한 일부 완화됐지만,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4월 한달 간 일본 국채 금리는 +7.0bp 상승하며 주요국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견조한 임금을 바탕으로 물가와의 선순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인상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영향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6.9bp 하락했다. 3월 저점 대비 고점까지 50bp를 기록하며 변동성이 높은 장세를 기록하다 4월 들어 4.2~4.4% 레인지 내 등락 중에 있다.

브라질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3월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중동 불확실성이 완화됨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고, 룰라 대통령의 대선 지지율이 낮아진 영향으로 브라질 국채 금리가 큰 폭 하락하면서 미국과의 만기 수익률 격차는 중동 전쟁 이전 수준인 140bp까지 좁혀졌다. 원자재 강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달러 강세장 속에서도 브라질 헤알화와 멕시코 페소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고, 이는 신흥국 채권 강세장을 견인했다.

한국시간으로 4/28 일본 BOJ, 4/30 미국 FOMC와 브라질 B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1) **일본**의 경우 4월 동결 후 6월 인상을 전망하며, 당분간 금리 상방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 2) **미국**의 경우 4월 동결을 전망하며 금리 방향성이 뚜렷하기보다 변동성만 큰 장세 예상, 3) **브라질**의 경우 4월 25bp 인하 전망하며 단기물 중심 보유 전략을 권고한다.

** 국가별 통화정책회의 리뷰와 프리뷰는 뒷장을 참고

2026년 04월 20일 | 기업분석

팬오션 (028670)

1Q26 Pre: 혼란한 해운 시황, 그러나 잘 버텨낼 것

BUY (유지)

목표주가(12M)	6,400원
현재주가(4.17)	5,47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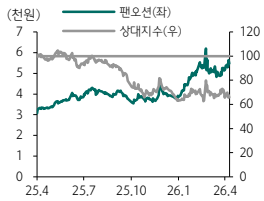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191.92
52주 최고/최저(원)	6,200/3,280
시가총액(십억원)	2,924.1
시가총액비중(%)	0.06
발행주식수(천주)	534,569.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064.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2.4
외국인지분율(%)	15.62
주요주주 지분율(%)	
하림지주 외 10 인	54.91
국민연금공단	8.6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5,784.4	5,897.8
영업이익(십억원)	539.2	574.6
순이익(십억원)	363.7	412.8
EPS(원)	681	772
BPS(원)	11,357	12,05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5,161.2	5,432.9	6,413.0	6,532.2
영업이익	471.2	491.9	563.6	618.9
세전이익	282.1	318.2	368.8	444.6
순이익	268.1	301.4	350.4	422.4
EPS	502	564	655	790
증감율	9.61	12.35	16.13	20.61
PER	6.57	6.83	8.35	6.92
PBR	0.31	0.36	0.48	0.46
EV/EBITDA	4.77	5.15	5.10	4.66
ROE	5.17	5.30	5.94	6.77
BPS	10,576	10,707	11,362	11,992
DPS	120	150	160	16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1분기 영업이익 1,363억원 전망

팬오션 1분기 매출액은 8% (YoY) 증가한 1조 5,070억원, 영업이익은 20% 증가한 1,363억원으로 전망한다. 1분기 BDI 평균은 +75%(YoY)/-9%(QoQ) 변동한 1,955pt이며, 전쟁 이후 BDI는 추가 상승하며 원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올해 운송 섹터 내에서는 연료비 상승분을 상쇄 가능한 운임 전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실적의 차별화 요인이다. 국내 벌크선은 대형선 위주 장기계약 노출도가 높고, 따라서 실적 안정성이 높을 전망이다. 해운사의 경우 대부분 1달 내로 올라간 벙커유 가격에 대한 대응(운임 인상/Surcharge 부과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 영향은 3월/4월에 집중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1분기~2분기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실적 변동성은 제한적이다. 팬오션은 1분기 벌크 용선을 보수적으로 운용했던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부문별 1분기 영업이익은 510억원(+7% (YoY)), 컨테이너선 76억원(-52%), 탱커선 319억원(+60%), LNG선 457억원(+45%)로 전망한다.

탱커선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전쟁 이후 탱커선은 단기 호황을 누리고 있다. BCTI는 4월 중순 기준 2,135pt를 기록하며 전쟁 이전 대비 148% 상승했다. 중동 전쟁 이후 제품 수요가 촉발되며 선복 수요가 늘어났고, 시장 내 가용 선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임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다. 다만 5월 이후부터는 상황이 좀 다르다.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정유 시설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제품선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팬오션의 경우 MR/Chemical 선대를 스팟 시장에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탱커선 사업부가 2026년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쟁 이후를 생각할 때

전쟁은 일반적으로 공급망 혼란과 운임 인상을 야기한다. 전쟁 이후 원자재 재고 보충 수요가 단기간 내에 촉발될 예정이고, 공급량 증가가 제한적인 벌크선의 시황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팬오션의 주가는 P/B 0.47배로 글로벌 Peer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전쟁 이후의 기회 요인을 감안하면 현 주가에서의 다운사이드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팬오션에 대해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6,400원을 유지한다.

자본규제 추가 완화로 2분기 CET 1 상당폭 상승 전망

은행 Weekly | 2026.4.20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에도 은행주 초과하락. 자본규제 추가 완화에도 반응폭 미미. 유가와 환율 크게 하락해 위험자산 선호도 높아졌던 한 주

- 전주 은행주는 약 2.4% 상승했지만 KOSPI 상승률 약 5.7% 대비 초과하락했다.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3주째 초과하락 중이다. 이스라엘-레바논까지 휴전에 들어가고 휴전기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일시 해제 소식, 여기에 미국과의 이란과의 2차 협상 예정 등으로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졌던 한 주였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권 자본규제 추가 완화 방안 등이 발표되었지만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 한편 호르무즈 개방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25%로 한주간 7bp 하락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3.71%로 9bp 하락했다. 전주 원/달러 환율은 큰폭 하락해 1,460.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주 외국인은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5,500억원과 1,600억원 순매도했고, 국내 기관은 KOSPI와 은행주를 1.2조원과 2,050억원 순매수했다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 추가 계획 발표. 손실사건의 운영리스크 반출 배제, 구조적 외환포지션 지분투자/이익잉여금 확대 예정

-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1) 비상장주식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250%로 변경, 2) 정책목적 주식·펀드의 경우 위험가중치 100% 적용, 3) 신규 취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0%로 상향 등이다. 4) 해외점포 출자금을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승인하고 시장리스크 산출시 제외하기로 한 점은 지난해말 은행들이 자본비율에 모두 반영했다
- 비상장주식 위험가중치 변경의 경우 1분기 중 적용 여부가 애매모호했던 상황인데 금융당국 발표로 1분기에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은행지주사 1분기 CET 1 비율 하락 폭이 예상보다는 다소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KB와 신한, 하나의 경우 1분기 중 약 30bp 내외의 CET 1 비율 하락을 예상했었는데 상기 요인 감안시 20bp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한편 신규 과제로는 1) 재발가능성이 낮은 손실사건 운영리스크 산출시 배제(3년이상 인식한 경우)와 2) 구조적 외환포지션을 해외점포출자금 외에 해외장기지분투자 및 해외점포이익잉여금까지 확대할 예정(4월 예상)이다. 따라서 이는 2분기 CET 1 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외환포지션의 경우 해외장기지분투자 규모가 큰 하나금융과 해외점포이익잉여금이 큰 신한지주가 타사대비 비율 상승 폭이 더 클 전망이다. 이는 모두 은행주 자본비율에 긍정적인 뉴스들이다

3월 월중 NIM 큰폭 상승 전망. 1분기 분기 NIM 상승 폭도 커지며, 연간 평균 NIM은 최소 YoY 5bp 이상 상승할 가능성 높음

- 우리 필드테스트에 따르면 은행 3월 월중 NIM이 전월대비 큰폭 상승하면서 1분기 분기 NIM 상승 폭도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3월 월중 NIM 상승 폭이 큰 이유는 연체회수가 많은 분기말월의 계절성과 더불어 1월초부터 3월 중순까지 시중금리가 큰폭 상승한데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 중동사태 완화 기대감으로 4월 들어서는 시중금리가 다소 하락했지만 연초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NIM 상승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2026년 은행 평균 연간 NIM도 최소 5bp 이상 상승할 공산이 커졌다. 따라서 이자이익 개선이 지속될 것이고,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2분기 수수료이익도 계속 양호할 것이라는 점에서 은행 핵심이익 확대 기대감은 계속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2분기 상승 요인 등으로 1분기 자본비율 하락 우려가 많이 희석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적 발표 이후 관전포인트는 외국인의 후행적 매수세 전환 여부. 장담하기 어렵지만 기대감을 굳이 낮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

- 금주 신한지주를 필두로 어닝시즌이 시작되는데 관전포인트는 실적 발표 이후의 외국인 매매 동향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은 그동안 은행주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경우 발표 이후 후행적으로 강하게 매수하는 패턴을 보여 왔는데 최근의 시장 및 은행주 순매도 국면에서 호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매수세로 전환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지난 몇개분기동안 어닝시즌 전후로 은행주의 주가수익률이 항상 양호했다는 점에서 금번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감 또한 굳이 낮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금주 은행 주간 선호 종목으로 KB금융(매수/TP 200,000원)과 신한지주(매수/TP 126,000원)를 제시

WSA, 올해 전세계 철강 수요 소폭 증가 전망

철강금속 Weekly | 2026.04.20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주간 동향

철강금속 주요 지표 동향

- 국내 철강가격(원/톤)

  열연 유통가: 95만원(WoW, +2.2%), 열연 수입유통가: 89만원(WoW, +1.1%), 철근 유통가: 84만원(WoW, +0.6%), 후판 유통가: 98만원(WoW, +1.0%)

- 해외 철강가격(달러/숏톤, 위안/톤) (1 Short Ton=907kg)*

  미국 열연 유통가: 1,040달러(WoW, +1.5%), 중국 열연 유통가: 3,320위안(WoW, +0.9%), 중국 냉연 유통가: 3,776위안(WoW, +0.3%), 중국 철근 유통가: 3,214위안(WoW, -0.2%)

- 원재료 가격(달러/톤, 원/톤, 달러/톤)

  중국 철광석 수입가: 105.9달러(WoW, +1.2%), 한국 스크랩가: 42.2만원(WoW, +0.5%), 호주 원료탄(FOB): 231.8달러(WoW, -1.7%)

- 주요 비철금속(LME) 및 귀금속 가격(달러/톤, 온스)

  전기동: 13,149달러(WoW, +3.9%), 아연: 3,443달러(WoW, +3.6%), 연: 1,945달러(WoW, +3.0%), 니켈: 17,909달러(WoW, +5.1%), 금: 4,858달러(WoW, +2.0%), 은: 81.8달러(WoW, +7.0%)

- 국내 철강 유통가격: 주요 제품 6주 연속 상승, 국내 재고 감소와 수입산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작용
- 중국 철강 유통가격: 원재료 가격 상승과 바오산을 비롯한 제강사들의 가격 인상 정책으로 반등 성공
- 산업용 금속가격: 미달러 약세와 미-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으로 2주 연속 상승

철강금속기업 주가 동향

- 국내 철강금속기업

  POSCO홀딩스: 38.5만원(+4.3%), 현대제철: 3.91만원(-3.2%), 세아베스틸지주: 7.51만원(+19.0%), 고려아연: 167.9만원(+6.2%)

- 해외 철강기업(자국 통화)

  BAO STEEL: 6.3위안(-1.9%), A. MITTAL: 53.44유로(+2.7%), NSSMC: 595.0엔(-0.9%), TATA STEEL: 212.12루피(+2.7%), NUCOR: 195.87달러(+5.2%)

- 총평: 글로벌 철강사들 주가 국가별로 차별화. 비철금속가격 상승으로 관련 업체들 주가 상승세 두드러져….

이번 주가 중요한 분수령

에너지/화학 Weekly Monitor | 2026.04.20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Weekly Issue: 이번 주가 중요한 분수령

- **총평**

- WTI 83.9$/bbl(-13%), Dubai 102.2$/bbl(+1%). 정제마진 47.0$/bb(WoW -16$) 조정.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 영향
- 4/22일 휴전 합의 종료일. 휴전 연장 및 핵심 쟁점 타결 등 확인 필요. 추천 종목 없음. 극적 타결 시 정유/화학 모두 긍정적

- **이번 주가 중요한 분수령**

- **이란-미국 휴전 만기 이번 주 도래:** 미국-이란 간 4/7일 맺어진 2주 간의 휴전 합의 종료는 4/22일 수요일. 추가 연장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 4/19일 현재 양 측 협상에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핵 이슈와 호르무즈를 둘러싼 핵심 이견은 남아있는 상황
-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한은:** 4/17일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는 '이스라엘-레바논 간 10일 휴전'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발표. 하지만, 이는 조건부 1) 휴전 잔여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 개방 언급. 즉, 개방 시한은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종료일인 4/26일까지. 하지만, 이란-미국 휴전이 종료될 경우 이는 4/22일로 앞당겨 질 수 있음. 즉, 약 3~4일 남은 셈 2) 제한된 수의 유조선/상선에 대한 관리된 통항만 허용 3)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종료. 이란 선박을 포함한 완전한 항행 자유 보장 요구
- **4/19일 다시 호르무즈 막힌 듯:**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요구한 항행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자 다시 해협 통제 강화. 이란 해군이 상선에 통과 불가를 통보하고 최소 두 척의 상선이 총격을 받아. 인도 정부도 국적 선박 2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확인
- **한국 정부의 대책:** 1) 산업통상부는 6월까지 계약된 나프타에 대해 전쟁 이전 가격 수준과 실제 수입 비용 간의 차액을 50% 보전할 예정(총 사업규모 6,744억원). 이는 LPG/콘덴세이트 및 기초유분 등 대체 원료까지 포함 2) 4~6월 중동산 원유에 대한 운송 할증료 전액 부담 예정(환급액 1,275억원 증가 전망). 이는 기존 추가 운송 비용의 25%만 지원했던 정부 프로그램의 대폭 확대를 의미 3) 강훈식 비서실장은 올해 말까지 카자흐/오만/사우디로부터 원유 2.73억bbl(사우디 2.5억+카자흐 1.8천만+오만 0.5천만), 나프타 최대 210만톤(오만 160만톤+사우디 50만톤) 추가 확보 발표. 원유/나프타 각각 3개월/1개월 분
- **중국의 화학 제품 생산량 감소 전망:** 중국 전체 비축유 규모는 90~180일로 추정되며 정유업체들은 필요한 원유를 최소 30일분 보유. 이에 따라, 3월에는 정유/석유화학 생산에 영향이 여타 국가 대비 적어. 다만, 최근에는 중국의 원유 재고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3/12일 정유업체에 내려진 석유제품 수출 중단 조치, 이후 두 차례에 걸친 휘발유/경유 내수 판가 인상폭 제한, 독립 정유업체에 대한 2025년 이상의 생산량 유지 명령(위반 시 원유 수입쿼터 삭감 경고) 등으로 적자를 감내하면서 설비를 가동하면서 빠르게 원유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것. 정부의 석유제품 생산 우선 정책에 따라, 중국 NCC 업체의 가동률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추정. ICIS는 중국 NCC 가동률이 2월 91% → 3월 81% → 4월 7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이는 Sinopec/PetroChina가 4월 정제설비 가동률을 MoM 6~8% 하향하는 대신 휘발유/디젤 생산량을 MoM +2~4% 확대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 이 과정에서 납사 생산량은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NCC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 **결론: 1)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 혼란 확대 불가피 2) 극적인 개방 시, 중동/중국 중심의 생산량 감소와 재고 소진에 따른 재고 확보 불가피. 지난 주 중동의 생산 비중이 높은 에틸렌/프로필렌, PE/PP 등이 납사 대비 하락폭이 적었다는 점 주목 3) 한국 정부의 납사 구매비 50% 보전 정책도 화학 업체의 수익성 측면에서 우호적 4) 해협 완전 개방 시 일시적으로 유가/제품가 하락하며 정유/화학업체 전반 주가 하락하겠으나, 이후의 펀더멘털 개선 가능성 감안하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듯. 정유업체는 상한제 해제가, 화학업체는 납사 구매 보조금이 단기 유가 급락 시의 완충 역할 가능**

- **미국-이란 휴전 종료 임박: 에너지 산업 Update(8)**

- 석유제품 시장: WTI 83.9$/bbl(-13%), Dubai 102.2$/bbl(+1%). 정제마진 47.0$/bb(WoW -16$) 조정. 유럽 디젤 선물 가격 WoW -27%.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 영향으로 전반 하락
- 가스 시장: 아시아 JKM -8%, 유럽 TTF -15%. 미국 Henry Hub +1%
- 석유화학 시장: 납사 -9% vs. MEG -11%, PVC -10%, BD -6%, 에틸렌 -3%, HDPE/PP 보합. 중동 생산 비중 큰 HDPE/PP 견조

오리온 간담회 시사점

음식료/담배 Weekly Comment | 2026.4.2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1. 주간 리뷰/전망 및 이슈 코멘트

1) 주간 리뷰 및 전망

- 전주 음식료 업종지수는 코스피 대비 -1.3%p 언더퍼폼 시현, 4월 들어 코스피가 전쟁 이전 수준 지수 레벨을 돌파 하면서 상대적으로 언더퍼폼. 섹터 내에서도 '대형주' 중심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 실적 및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대형주 매력도가 중소형주 대비 높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 투자가 지속 유효하다는 기존 의견 유지.
- 섹터 대장주인 삼양식품 주가가 11% 상승하면서 전주에 이어 유의미한 반등세를 시현함. 단기 주가가 위클리에서 언급했던 2027년 PER 15배(일본 Peer 밸류에이션 하방) 수준으로 빠르게 반등. 1분기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3월 라면 수출 데이터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 것이 시발점이 되었음. 더불어, 이번주 언론을 통해 1,500억원 규모(기존 만기 도래 제외 약 1천억원 추산) 회사채 발행이 보도되면서 설비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됨. 중국 공장은 빠르면 11월 시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9년부터 추가 설비가 필요한 상황. 통상적으로 해외 생산기지 건립에 약 3년이 소요된다는 점 감안시 사측에서는 2Q~3Q26 신규 시설투자 결정을 공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중 초반 오리온은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통해 배당 확대 의지를 재차 피력함. 이에 주중 후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줌. 26F DPS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적합 및 시중 금리 수준 이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소 4천원을 예상하며 그 이상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상황. 진천 공장이 가동되는 내년 8월 이후, 비영업자산 매각(수원 물류센터부지)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배당 여력은 섹터 내 상대적으로 풍부한 업체임.
- 한편, CJ제일제당 주가는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아미노산 Spot Price 상승세가 주춤하자 쉬어가는 모습.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하회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단기 주가는 소강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하나증권은 조정시마다 저가 매수로 대응할 것을 권고함. 2분기는 메치오닌이 견인하는 바이오 실적 턴어라운드와 더불어, 하반기 중국 돈가 업사이클 및 소비경기 회복에 따른 라이신/핵산 수요 증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기 때문. 빈수급 감안하면 연말까지 주가는 30만원 초반까지 상승할 공산 커 보임.
- 전주 상승: 삼양식품 +11.1%(신규 시설투자 기대감), CJ프레시웨이 +6.1%(저가 매수 유입), KT&G +4.3%(1분기 호실적 예상), 오리온 +3.4%(배당 확대 기대감), 롯데칠성 +3.0%(저가 매수 유입), 빙그레 +2.7%(저가 매수 유입), 동원산업 +2.6%(글로벌 어가 강세) 등

2) 주간 이슈 코멘트

(1) 오리온 최고경영자 간담회 시사점

- 오리온 간담회를 통해 ① Capa 확충을 통한 중장기 체력 Level-up 및 ② 신규 진출국(미국, 인도 등)에서의 가능성, ③ 견조한 영업현금흐름 및 비영업자산 유동화를 통한 풍부한 재원, ④ 이를 통한 사측의 배당 확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⑤ 올해 실적에 있어서는, 중국 간식채널 성장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증권은 오리온에 대한 Top Pick 관점을 재차 유지한다.
- ① 본업 Capa 확충: 작년 4월 향후 3년 간 약 8,300억원 시설 투자를 공시했다. 현재 한국 및 러시아는 Capa가 부족한 상황으로 각각 4,600억원, 2,4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한국은 진천 신공장을 건립중이며, 제과 이외 포장재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들어온다. 내년 8월 시생산이 목표인 만큼 Capa 증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러시아는 가동률이 140%까지 상승한 상황으로 올해 8월부터 라인 확충 통한 생산 증대가 가능할 것이다. 트베리 신공장은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 ② 신규 진출국 상황: 미국 수출액은 25년 45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대부분이 '꼬북칩'이다. 미국내 OEM 공장을 테핑 중이며 스터디 차원에서 현지 생산을 해 볼 계획이다. 매출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직접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인도는 25년 YoY 70% 성장한 것으로 추산(300억원 내외 추정)된다. 추가 라인을 증설 중이며 28년 BEP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비영업자산 유동화: 수원 물류센터 부지(사업사 소유)가 차후 진천공장으로 옮겨지게 되면 매각이 가능하다. 예상 매각 대금은 약 2,500억원이다. 용산 본사(홀딩스 소유)도 주상복합으로 개발될 예정인데, 예상 매각 대금은 약 2,000억원이다.
- ④ 배당: 오리온의 영업현금흐름 및 비영업자산 등을 감안하면 배당 여력은 충분하다. 시중 금리 이상으로 배당할 계획이며, 사업사 배당이 증가함에 따라 홀딩스 배당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⑤ 중국 전망: 올해 춘절 기간(작년 11월~2월) 동안 매출은 YoY 7%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어 내부적으로는 호실적으로 판단한다. 간식 채널이 여전히 40% 이상 고성장 중이다. 주요 Player인 밍밍헌망이 연초 상장되었으며, 완천그룹 IPO도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포 수 증가는 올해도 유효해 보인다. 제품 믹스를 통해 마진도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주간 관심종목

- 오리온, 삼양식품(2분기까지 호실적 예상) > CJ제일제당(2분기 바이오 턴어라운드 전망)

Arsenal of Democracy

2차전지 Weekly ⚡ 이배속(이번주 배터리 속이야기) | **Overweight** | 2026.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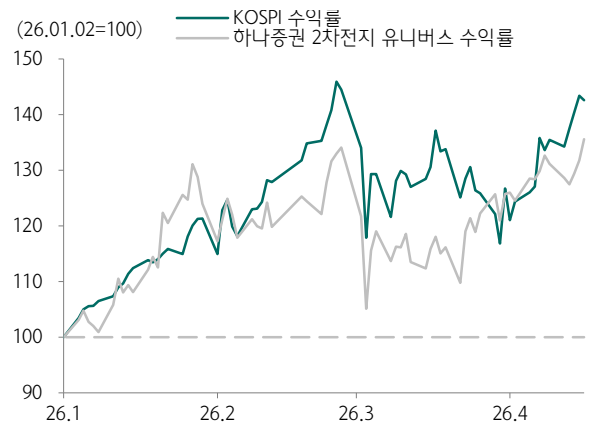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해석 및 투자 전략 : 한국 배터리 산업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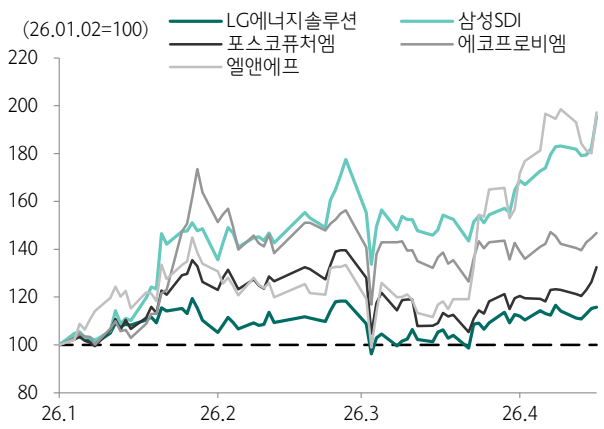
- 1940년 6월 프랑스가 무너지자 미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민간 자동차 기업들에게 군수 물자 주문을 시작했다. 1941년 1월 Office of Production Management(생산관리청)이 설립되면서 민간 기업의 전시 동원 시스템이 구축됐고, 1942년 1월 War Production Board(전시 생산 위원회)가 발족되며, GM을 포함한 자동차 기업들은 완전한 군수 생산체제로 전환된다. 이후 10여년간 미국이 2차대전과 한국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GM의 방대한 군수 물자 생산을 진두지휘했던 GM CEO Charles Wilson은 1953년부터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다.
- 약 70여년이 흐른 2026년 4월,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2개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대만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거대한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이에 최근 미국 정부는 GM, Ford, GE Aerospace 등 자동차 및 항공기 업체들과 군수 물자 생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025년 말 미국 산업계의 전시 체제 전환을 요구했던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이번 미팅에서 상기 업체들에게 방위 산업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계약 및 입찰 절차상의 장애 요소 등 그들이 직면한 제약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유럽의 Volkswagen 역시 2024년 초 방위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2026년 들어 실제로 방산 기업들과 논의를 진행하며 군수 생산 전환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독일 오스나브뤼크 공장을 활용해 군용 차량 및 아이언돔 관련 장비(수송차량·발사대·전력장치 등) 생산을 검토 중이며, 방산 전시회에 군용 차량 프로토타입을 출품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화 테스트 단계에 진입한 모습이다.
- (뒷 페이지 계속)

도표 1. KOSPI 대비 2차전지 섹터 수익률



자료: 하나증권

도표 2. 주요 업체 주가 추이



자료: 하나증권

데이터 포인트 해석 및 투자 전략 : 한국 배터리 산업 비중 확대

-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상황이 이러하다. 2차 대전을 통해 급성장했던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70년만에 군수 물자 생산을 요구 받는 시대다. 배터리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이러한 시대 흐름에 기초해야 한다. 직접적으로는 군수 물자 수혜가 예상된다. 러우 전쟁을 통해 위력을 확인한 무인기(드론 및 UAV)는 대부분 리튬 기반 전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러우 전쟁에서 위력이 확인된 1kg급 소형 FPV(First Person View)드론은 리튬폴리머 고출력 전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술급(5~50kg) 드론에는 실리콘 음극 등 고에너지 셀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 대형 드론 역시 전장에서 요구되는 고열 및 소음 방지 특성으로 인해 가솔린보다 배터리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전술 드론급 이상부터는 적어도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당 탑재되는 용량(약 2~3kWh)의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주가 측면에서는 군수 물자 관련한 배터리 이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4년 말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 배터리 기업 주가 폭락한 이후, Space X 등 우주 항공 산업에 배터리 탑재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반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용 배터리 역시 관련 소식이 구체화될 때, 전기차나 ESS 배터리와 달리 주가의 Valuation factor를 자극하는 강도가 매우 강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 보다 큰 틀에서는 타 산업에 주는 함의도 생각해 봐야한다. 민간 기업이 군수물자 생산을 요구 받을 정도로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배터리는 단순 부품이 아닌 에너지 안보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다. 배터리에 대해 미국에서 공급망 탈중국 기조를 강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ESS는 전력망 안보와 직결된다. 전시 혹은 준전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전력망을 의존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일각에서는 AMPC, ITC 이후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우회 침투를 우려하고 있으나, CHARGE Act 등 후속 입법이 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 최근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질문은, 제조업으로서 PER 40배 이상이 용인될 수 있느냐이다. 한국 기업들의 고 멀티플은 드론, 로봇 등 아직 열리지 않은 거대한 시장, 그리고 그 속에서의 점유율 강화 흐름으로 인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차대전 당시 민주주의의 병기창(Arsenal of Democracy) 역할을 했던 GM과 Ford가 새로운 패권 전쟁 속에 다시 한번 군수 물자 생산을 요구 받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미국 현지 공장 통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나아가 가파르게 성장 중인 한국 방산 및 자동차 기업들과 거래 중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고 멀티플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1분기 실적은 부진하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모두 1분기 적자 예상된다. 하지만 단기 실적보다 구조적 시장 성장의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 ESS로 인해 올해 내 분기 흑자 전환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가 과거처럼 친환경이나 탈탄소가 아닌,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이익 추구 행위에 기초한다는 점이 근본적인 변화다. 셀 메이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비중확대를 권고한다.

Tech&Stock Weekly

2026.04.17

Analyst 김재임_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아마존, 위성 통신 기업 Globalstar 인수 시사점 & 위성 관련주 주가 영향

아마존(AMZN.US): 위성 통신 기업 Globalstar 인수

아마존의 글로벌스타 인수 시사점

- 아마존은 4월 14일 위성 통신 기업 Globalstar를 주당 90달러, 총 115.7억 달러로 인수하는 계약 체결. 2017년 Whole Foods 인수 이후 최대 규모 M&A.
- 인수의 핵심 목적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집중해온 Amazon Leo(구 Project Kuiper)에 D2D 역량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 D2D는 지상 기지국 없이 일반 스마트폰에 직접 위성 신호를 전송하는 기술로, 글로벌스타가 보유한 S-band (Band 53/n53) 글로벌 독점 스펙트럼 라이선스가 이를 구현하는 핵심 자산
- 아마존은 이번 인수를 통해 Amazon Leo에 글로벌스타의 위성 운용 인프라, 지상국 네트워크, 글로벌 스펙트럼 라이선스를 통합하고, 2028년부터 D2D 서비스를 본격 출시한다는 계획
- 현재 글로벌스타 위성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Apple iPhone 및 Apple Watch의 긴급 SOS 위성 서비스도 Amazon Leo 체제로 이관, 확장하는 계약을 Apple과 병행 체결
- 이번 인수는 SpaceX의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가 구축해온 저궤도 위성 생태계에 맞서기 위한 포석으로, 향후 가파르게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위성 통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
- 아마존의 글로벌스타 인수 관련 보도는 공식 발표가 있기 전부터 관련 종목군에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위성 스펙트럼 자산 전반의 희소성과 가치를 재확인시켰기 때문

넷플릭스(NFLX.US): 1Q26 Review: M&A 취소에도 26년 비용 가이던스 유지, 수익성 우려로 주가하락

- 26년 1분기 매출 122.5억 달러(+16.2%), 조정 EPS 1.23 달러로 시장 컨센을 각각 1%, 60% 상회했으나 2분기 매출과 EPS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 WB 인수 계획 취소로 관련 비용 미발생했으나 27년 예정 비용을 미리 앞당기면서 26년 영업이익률 그대로 유지. 시청지표와 가입자 관련 코멘트 등은 긍정적이나 매출은 부합 수준이고 수익성 전망치가 기대치를 하회한 점이 영향을 미치며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하락
- 2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125.7억 달러 (컨센 126.1억), 조정 EPS 0.78 달러(컨센 0.84)
- 2026년 연간 가이던스 유지. 매출 성장률 12~14%, 영업이익률 31.5%, 광고 매출 목표 30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2배
- 연초 가이던스에 M&A 관련 비용 2.8억달러 포함, WB딜 철수로 일부 비용 미발생, 그러나 27년 예정 비용 일부가 26년으로 당겨지면서 26년 영업이익률 전망에 실질적 영향이 없어 기존 가이던스 그대로 유지
- 미국 구독료 인상은 사전 계획된 조치로 연간 가이던스에 이미 반영
- 1분기 올림픽에도 불구하고 시청시간 성장률 2025년 하반기와 유사한 성장률 유지
- 광고주 기반은 2025년 광고주 수 YoY 70% 성장, 총 4천개사 이상 광고주 확보. 현재는 대형 광고주 중심으로 운영.
- 자체 광고 테크 스택으로 전환이 광고 사업 성장의 핵심 인프라 기반, 광고주 입장에서 구매 편의성 대폭 향상. 자체 스택에 더해 다수의 DSP 파트너 추가. 광고주 입장에서 구매채널 다양화. DSP 확대가 프로그래매틱 광고 성장의 동인
- 지역별 성장을 보면 APAC 지역이 1분기 환율 중립 기준 최고 성장 기록, WBC Japan 효과와 인도, 한국, 동남아 전반 강세
- WBC Japan 3,140만 시청자 기록, 글로벌 최대 야구 스트리밍 이벤트 달성. WBC 이후 다른 일본 오리지널 시리즈 시청도 동반 상승. 라이브 이벤트의 콘텐츠 헤일로 효과 확인
- 넬슨이 시청률 측정 방식 변경해 스트리밍 가구 가중치를 축소하여 상대적으로 스트리밍 시청률이 낮아지게 되었으나 스트리밍 시청량과 관계가 없으며 광고사업에 미치는 영향 없음. 넬슨 지표가 광고거래의 기준 지표가 아니기 때문

2026년 4월 20일 | Global Equity

넷플릭스(NFLX.US)

워너 인수 철회에도 가이던스 상향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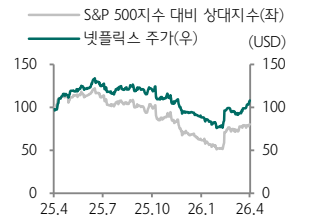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114.22 USD
CP(4.16)	107.79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주요 영업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www.netflix.com
시가총액(십억USD)			455.1
시가총액(조원)			673.5
52주최고/최저(USD)			134.115/75.01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9.24
블랙록			8.25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3.1	(9.0)	12.0
상대	8.3	(14.9)	(21.1)

Stock Price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9,001	45,183	51,373	57,348
영업이익	10,418	13,327	16,381	19,582
순이익	8,712	10,981	13,899	16,409
EPS(USD)	2.0	2.5	3.2	3.8
EPS(YOY, %)	58.9	29.7	27.0	18.7
ROE(%)	38.4	42.8	44.3	44.5
PER(배)	45.4	36.9	33.4	28.1
PBR(배)	15.4	14.9	13.8	10.9
배당률(%)	0.0	0.0	0.0	0.0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1Q26 OP 40억달러(+17% YoY)

1분기 매출액은 광고 매출 성장과 가입자 성장 등에 힘입어 약 $123억(18조원, +16% YoY), 영업이익은 약 $40억(6조원, +17%)을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EPS는 $1.23(+86%)로 워너브라더스 인수계약 해지 수수료로 받은 $28억이 반영되며 컨센서스($0.84)를 크게 상회했다. 지역별 매출 성장률은 UCAN +14%, EMEA +17%, LATAM +19%, APAC +20%를 기록했다. WBC가 글로벌 기준 3,140만 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하고 일본 역대 최다 시청 프로그램이 되는 성과를 거두며 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분기 가이던스는 하회, 연간 가이던스는 명목상 유지

2분기 가이던스는 매출액 $126억(+14%)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지만, 영업이익과 EPS가 각각 $41억/$0.78로 컨센서스($43억, $0.84)를 소폭 하회한다. 2분기 가이던스는 콘텐츠 상각비 증가에 따른 일시적 비용 부담에 기인하며, 하반기에는 상각비 증가율 둔화, 광고 매출 확대 및 가격 인상 효과를 통해 마진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간 가이던스에 대한 회사의 자신감은 유지되고 있다. 하반기 라인업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초대형 IP가 없어 작년 동기 대비 무게감이 낮아 보이지만, <뤼팽 S4>, <Elite S8>와 같은 로컬 흥행 시리즈가 지역별로 고르게 배치되어 있으며, $2억이 투입된 데이비드 핀처의 신작 <클리프 부스의 모험>과 <나니아 연대기>도 개봉 예정이다. 다만 워너브라더스 인수가 철회되었음에도 연간 영업이익률 가이던스(31.5%)가 상향되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주가는 2026년 예상 P/E 33배 수준에서 거래 중이다.

광고와 AI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성장성은 유효

회사는 2026 년 광고 매출을 전년 대비 2 배 수준인 $30 억으로 제시했는데 이제는 광고가 단순 부가 수익원을 넘어 또 하나의 유의미한 성장축으로 올라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요금제는 광고 지원 국가에서 1 분기 신규 가입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광고주 수도 4,000 개를 상회하며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AI 역시 추천 고도화, 대화형 탐색 등 이용자 경험 전반에 적용되고 있으며, 3 월에는 영화 제작 AI 업체 InterPositive 를 인수해 콘텐츠 제작 단계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광고 사업은 수익화 레이어를 넓히고 AI 는 콘텐츠 투자 효율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면서, 본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함께 보강하는 중장기적인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알리바바, 과금체계 개편 통한 가격 인상 본격화

Hana China Weekly | 2026.4.17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알리바바(9988.HK): 빅데이터 및 AI 플랫폼 과금체계 개편 통한 가격 인상 본격화

- 4/13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빅데이터 개발·거버넌스 플랫폼 DataWorks의 API 무료 호출량을 대폭 축소하고 종량제 과금(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는 과금 방식)을 도입한다고 공시. 표준 버전은 월 10만 회, 전문 버전은 월 50만 회로 무료 한도를 조정하며, 초과분은 OpenAPI 종량제로 과금하고, 일일 호출 횟수 제한은 폐지.

- 4/16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산하 AI 모델 플랫폼 '바이롄(Model Studio)'의 MU(모델 컴퓨팅 파워 배포 최소 단위) 가격을 약 2~7% 인상한다고 발표. 이는 최근 DataWorks API 무료 한도 축소·종량제 전환(4/13), AI 칩·스토리지 가격 인상(4/18)에 이은 연속적인 가격 조정으로, 글로벌 AI 수요 폭증에 따른 하드웨어 조달 비용 상승 및 Token 호출량 급증에 대응한 수익화 전환 기조가 뚜렷.

유니트리(비상장): 알리바바와의 협력으로 글로벌 판매 공식 개시

- 4/9 유니트리의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R1'이 알리바바 항저우 본사에서 테스트·시연 형태로 포착되며 양사 협력 가능성이 부각. 이후 4/15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니트리는 알리바바의 AliExpress를 통해 R1 휴머노이드 로봇의 글로벌 판매를 공식 개시. 해외 판매 가격은 관세 포함 약 8,150달러이며, 축소 버전은 약 6,800달러로 책정되었으며 미국 배송은 무료로 전해짐. 유니트리의 하드웨어(로봇) + Alibaba의 글로벌 커머스/물류 인프라 결합 모델이 현실화될 경우 B2C 로봇 상용화 속도 가속 기대. 이는 단순히 이커머스 플랫폼에 제품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유니트리의 하드웨어와 알리바바의 글로벌 커머스·물류 인프라를 결합한 B2C 로봇 유통 모델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CATL(3750.HK): 홍콩 시장에서 증자 발행 검토 중

- CATL의 1Q26 매출액은 1,291억위안(YoY +52.4%)으로 컨센서스를 11.0% 상회, GAAP 기준 순이익은 207억위안(YoY +48.5%)으로 컨센서스를 15.7%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 1분기 출하량 증가세(YoY +60% 이상)가 견조한 EV와 ESS향 수요를 바탕으로 2025년(YoY +39%) 대비 가속화됨에 따라 매출/순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
- 4/13 블룸버그에 따르면 CATL이 홍콩 시장에서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주식 발행(증자)을 검토 중이며, 복수의 투자은행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전환사채(CB) 발행도 병행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환사채(CB) 발행도 병행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CATL측에서 증자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음. CATL은 2025년 5월 홍콩 IPO 당시 약 46억달러를 조달한 바 있으며, 해당 자금의 대부분은 BMW,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등 유럽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헝가리 공장 건설에 배정하였음. 따라서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또한 헝가리 공장 완공과 유럽 전역 현지화 생산 거점 확대를 위해 쓰일 것으로 추정.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4/20	216,000	신규	-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4/20	1,128,000	신규	-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KB금융 (105560.KS)	4/20	162,300	신규	-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국금융지주 (071050.KS)	4/20	257,000	신규	-	•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 IMA 출시 이후 추가된 조달재원을 기반으로 레버리지 및 운용자산 규모 확대 기대
HD건설기계 (267270.KS)	4/20	162,900	신규	-	• 신흥국 인프라·광산 투자 수요와 호주 등 해외 판매 확대 지속으로 외형 성장 기대 • 2025년 글로벌 건설장비 판매가 3년 간의 역성장을 마무리하고 반등에 성공
삼아알미늄 (006110.KS)	4/20	53,000	신규	-	• 2023년 완료된 LIB용 알루미늄박 경쟁력 강화 투자에 이어 추가 투자 지속 • 자동차 제조사들과 배터리 고객사들의 부진에도 ESS 물량 증가로 인한 실적 기대
리가켐바이오 (141080.KQ)	4/20	197,400	신규	-	• 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 • 20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
덕산테코피아 (317330.KQ)	4/20	25,650	신규	-	• 미국 내 한국 셀 메이커들의 ESS 생산 본격화되는 과정에서의 낙수효과 기대 • 자회사 덕산일렉테라의 북미 전해액 공장 본격 가동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LIG아큐버 (073490.KQ)	4/20	47,850	신규	-	• 5G SA 시대 맞이해 시험장비/스몰셀 매출 크게 증가할 전망 • 통신장비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오름 폭이 적은 상태라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
와이엠티 (251370.KQ)	4/20	17,350	신규	-	• AI 시대를 맞아 PCB 산업 고도화 추세. 도금 소재 품질 요구 상승 수혜 가능 • PKG 기판 업체들의 설비투자 확대와 AI·5G·IoT 확산에 따른 고사양 기판 수요 증가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Last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5.82%	+0.20%p	+65.86%	+23.0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신규	-	•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더블유씨피 (393890.KQ)	4/20	16,520	신규	-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1,128,000	9.83%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E&A (028050.KS)	4/13	51,200	49,550	-3.22%	• 1Q26 Preview 매출액 2.3조원(YoY +11.6%), 영업이익 1,832억원(YoY +16.5%) 전망 • 이란 재건 기대감과 해협 개방에 따른 국내 건축자재 수급 우려 해소 기대
RFHIC (218410.KQ)	4/13	91,900	93,300	1.52%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16,000	29.19%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108,500	18.19%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KB금융 (105560.KS)	4/1	141,900	162,300	14.38%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85,000	15.79%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4/1	164,700	188,400	14.39%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7조원은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448,000	9.14%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394,000	34.24%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1.26%	-9.90%p	+34.68%	-8.12%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9,985	1.4%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4,880	-1.8%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8,080	10.7%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295	56.1%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79.13	4.4%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6.58	23.9%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454.80	34.1%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6.21	18.1%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미국 3월 소매판매 (E 1.40%, 2월 0.60%)	▪ 한국 3월 PPI(전년비) (E--, 2월 2.40%) ▪ 일본 3월 무역수지 (E--, 2월 ¥57.3B) ▪ 유로존 4월 소비자기대지수(속보치) (E--, 3월 -16.3)	▪ 한국 1분기 전기대비/전년대비 GDP (잠정치) (E --/--, 이전치 -0.2%/1.60%) ▪ 미국 4월 3주차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일본 3월 전년비 CPI (E--, 이전치 1.60%) ▪ 미국 4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지수 지수 (E--)	
4.26	4.27	4.28	4.29	4.30	5.1	5.2
		▪ 일본 3월 실업률 (E --, 2월 2.60%) ▪ 미국 4월 CB 소비자기대지수 (E 88.8, 3월 91.8)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